

# 해남군, '아동 권리 주체' 정책 혁신으로 친화 도시 정착

도 유일 복지부 '아동친화 유공' 수상  
유니세프 인증 35개 중점 사업 협업  
청소년 참여단 제안 26건 군정 도입  
민관 협력체계 구축·권리지킴이 운영



해남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6 아동친화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 공모에서 전남 지역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아동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린 군민원탁토론회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아동친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 아동친화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 공모에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의 보호, 안전, 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아동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과 유니세프 업무협약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진 데

이어,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군수를 단장으로 한 내부정책조정단을 필두

로 10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35개 중점사업을 통합 추진한 점이 주요했다. 아동의 목소리를 행정에 직접 녹여내는 '참여

권' 보장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아동청소년참여단이 제안한 47건의 정책 중 26건을 실제 군정에 도입했으며,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판)를 통해 권리 침해 사례를 상시 감시하는 등 촘촘한 권리 보호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군은 '아동권리교육 하나데이'와 ESG 상상놀이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으며, 이번 표창을 통해 아동 정책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분석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군민과 유관기관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완도군-탄자니아, K-해조류 수산 기술 협력 강화

사절단 양식 현장 등 시스템 견학

완도군은 "최근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사절단이 1박2일 일정으로 완도를 방문해 해조류 양식 시설 견학과 수산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완도의 선진 해조류 양식 시스템을 탄자니아 현지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절단에는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과 존 마스카 경제 보좌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신지연 양식장을 찾아 다시마와 김, 미역 생산 환경을 확인하고 신우철 군수와 수산

기술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 신우철 군수는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블루가분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해조류의 미래 가치를 강조했다.

신 군수는 "완도가 해조류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토골라니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완도의 양식 기술이 탄자니아에 전수돼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 최근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대게이오대 선수단, 영광서 수상스키 전지훈련

영광군은 11일 "일본 게이오대학교 선수단과 국내 수상스키 선수들이 영광수상스키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스포츠 국제 교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은 양국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실전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일본 게이오대 선수단과 국내 선수들이 참여해 개인별 맞춤형 기량 향상 훈련과 실전 중심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훈련은 선수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기

술 보완, 체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참가 선수들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영광수상스키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사진>

특히 영광수상스키장은 우수한 수면 환경과 시설을 갖춘 전국 수상스키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매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강진 다산박물관, K-뮤지엄 순회전시 '기지개'

실학박물관 협력 국비 1억원 확보

'24절기' 주제 실학자 애민 재해석

강진다산박물관이 실학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순회전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산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우수 전시 콘텐츠의 지역 확산과

박물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며, 다산박물관은 실학박물관과 협력해 절기에 천문과학을 접목한 '24절기: 하늘을 읽어 땅을 살리다'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다.

전시는 24절기를 중심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이를 삶에 연결한 실학자들의 노력과 애민 정신을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서 절기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과거의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생태 농부의 삶을 함께 조명해 실학의 현대적 가치를 제시하

는 참여형 전시로 꾸며진다.

전시 일정은 12일 남양주 실학박물관을 시작으로 다산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순회전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람객들이 일상 속에서 절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선재 다산박물관장은 "이번 선정은 실학문화의 지역성을 결합한 전시 기획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호흡하며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신안군, '굿즈 창작 교실' 수강생 모집

오늘부터 10명 대상...전액 무료

신안군은 11일 "저녁노을미술관이 5월 주말 교육프로그램인 '1004섬 우리 마을 굿즈 창작 교실'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안 섬을 대표하는 꽃과 특산물을 색연필화와 아크릴화 등 다양한 회화 기

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활용해 에코백, 자개 정반, 마그넷, 키링 등 실용 굿즈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 중심 과정이다.

교육은 총 8회차로 운영되며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자 작품을 모은 팝업 전시도 열린다. 강사는 전남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사업 등 교육 경험이 풍부한 윤선미 예술강사가 지도를 맡

는다.

매주 토요일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비와 재료비가 전혀 무료이며, 신안 군민을 우선으로 성인 1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전화 접수로 받는다.

저녁노을미술관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굿즈 제작 과정을 통해 마을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신안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양홍기 기자

고용부 목포지청, 15일까지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1일 "오는 15일까지 파쇄기와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지역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계 설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이력과 위험 기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예고없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실제 사고가 빈번한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불시 점검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무안군, 고구마 삼목묘 정식기로 농가 '활력'

128공 트레이 육묘 기술 점검

노동력 절감·효율 향상 기대

무안군이 고구마 재배 과정의 전면 기계화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해제면 산길리 일원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와 재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삼목묘 기계정식 현장 시연회'를 열고 생력화 재배 모델 검증에 나섰다. <사진>

이번 시연회는 채소정식기를 활용한 기계정식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작업 효율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3년부터 128공 트레이에 고구마순 1

-2마디를 삼목해 육묘한 뒤 채소정식기로 정식하는 실증시험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현장에서는 승용형 채소정식기를 활용해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모종을 식재함으로써 작업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대규모 재배 시 반복되는 수작업 부담을 줄여 농번기 인력 수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삼목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육종 품종 보급을 연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함균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계정식기 도입은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력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